

온라인 경매 '제로베이스' 전남 신진작가 발굴 성과

전남문화재단 주최·서울옥션 주관 경매 시작가 0원·작품 소장 기회 5년간 375점 출품·낙찰률 100% "지역작가들 소개하는 가교 역할"

전남문화재단이 국내 대형 경매업체와 손잡고 전남 작가들의 수도권 미술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경매 '제로베이스'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제로베이스' 사업 활성화는 지역 신진작가를 지속 발굴하는 성과로도 나타나고 있다.

'제로베이스'는 지난 2020년부터 전남문화재단이 국내 최대 규모 미술품 경매 기업인 서울옥션과 연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전남에서 활동하는 미술작가들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비해 전시·경매·작품 노출 등 모든 분야에서 열악한 환경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로베이스는 지역 출신 작가들의 수도권 미술시장 진출을 통한 작품 유통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회화 세계를 시장에 소개해 그 저변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제로베이스 온라인 경매는 이름처럼 작품가를 0원으로 시작해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작가들의 작품 가격을 전적으로 구매자들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참가 자격은 전남 출신이거나 전남에 거주하는 작가 또는 관내 초·중·고등 및 대학교 졸업자에게 주어진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시작된 이번 제로베이스 온라인 경매에 앞서 작품을 실



지난달 29일 전정미 작가가 서울옥션 강남센터 지하1층에 전시된 작품 '불의를 향해 쏘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로 감상할 수 있는 프리뷰 전시가 지난달 18~20일 화순 하니움스포츠센터, 지난달 25~29일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각각 진행됐다. 이번 제로베이스에 참여한 작가는 전영미, 전정미, 최인경, 이현숙, 임지인, 허정록, 한태정, 강우리, 켈리너리, 이호국, 여승주, 장정순 등 12명으로 79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올해 처음 출품한 신규 작가는 9명으로 최인경 작가는 지난 2021년, 허정록 작가와 이호국 작가는 지난해에도 참여한 바 있다.

프리뷰 전시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찾은 서울옥션 강남센터 지하 1층은 강렬한 화풍과 독창적인 기법으로 표현된 결

과물들로 가득했다. 이날 켈리너리(예명), 한태정, 전정미, 이현숙 등 4명의 작가가 서울옥션 강남센터를 찾아 전시된 작품들을 감상하고 관계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로베이스 참여작가 수는 △2020년 8명 △2021년 7명 △2022년 6명 △2023년 10명 △2024년 12명으로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올해 79점 작품이 모두 팔리며 지난 5년간 전시작 총 375점에 대한 낙찰률 100% 기록이 이어졌고 3억 4000여만원의 판매고를 올리는 성과를 냈다. 이 밖에도 제로베이스를 통해 스타 작가로 떠오르고 서울과 해외를 무대로 활발히 활동하는 성공 사례가 등장하며

해당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등에 업은 인지도도 올라가고 있다.

지난 2020년 첫 제로베이스 경매에 참여한 고차분 작가의 '다른 선택'은 48회의 경합 끝에 그해 가장 높은 금액에 낙찰됐고 이어 2021년에는 그의 작품 'Good News'가 88회의 경합 끝에 역대 제로베이스 경매 중 가장 높은 금액인 1610만원에 낙찰된 바 있다. 그는 현재도 전남과 광주를 거점으로 꾸준히 미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열린 제로베이스 경매에도 참여해 낙찰금 일부를 전남 신진작가들을 위해 기부했다.

제로베이스는 큰 틀에서 보면 전남문화재단이 지역의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도예술은행'의 일환이다. 남도예술은행은 2005년부터 지역 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침체된 미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된 장기 예술지원 프로젝트로 내년 20주년을 맞이한다. 이에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제로베이스가 20주년을 맞는 남도예술은행에 맞춰 사업의 확대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옥션 측은 전남문화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경매 사업을 통해 지역 출신 작가들의 수도권 진출을 돕는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정태희 서울옥션 경매사업팀 팀장은 "서울옥션은 널리 알려진 대가들의 작품을 주로 선보이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미술시장과 지역 작가 발굴을 위해 젊고 새로운 미술작가들을 소개해야 한다는 생각

을 항상 갖고 있었다"며 "제로베이스라는 온라인 경매를 통해 지역의 신진작가들과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을 서울에서 선보일 기회가 주어져 상호 간의 발전을 위해 잘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팀장은 이어 "내년에는 남도예술은행이 20주년을 맞아 더 특별한 프로그램을 전남문화재단과 함께 구성해 준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미술경매 시장에서 이와 같은 사업이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젊은 작가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실제 미술경매 시장의 하락세는 현재 진행형으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기업부설연구소 카이가 발표한 '2024년 3분기 미술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9개 미술경매사의 낙찰총액은 237억 5000여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1억 7600여만원보다 2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술시장 컬렉터들로부터 기존에 진행했던 작가보다 신진작가의 중저가 작품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장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수도권 미술시장에 진출하거나 노출되는 기회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제로베이스 경매는 그 활로를 열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남 작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미술시장 진출 어려운 지역작가 위한 경매사업 확장 희망”

제로베이스 온라인 경매 참여작가 켈리너리·한태정·이현숙·전정미 등 자신의 작품세계·참여 계기 밝혀

'제로베이스 온라인 경매 프리뷰 전시'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29일 켈리너리, 한태정, 이현숙, 전정미 등 4명의 작가가 서울옥션 강남센터를 찾아 미술에 빠지게 된 각자의 사연과 경매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이들은 작품에 착안한 각자의 배경을 설명하며 일생과 미술이 맞닿은 지점들을 소회했다.

작가들은 제로베이스에 대해 "지역 작가들의 미술시장 진출 기회는 매우 어렵다"며 "강남 한복판에서 전시할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가격을 떠나 큰 의미다. 앞으로 이 같은 사업이 더 확장되고 늘어나 지역의 숨은 작가를 발굴하고 보물을 캐내는 작업이 더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입을 모았다.

●켈리너리(예명) 작가, "인간의 신체를 통해 내면을 찾는 과정"

4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2009년에 작가로 데뷔한 켈리너리씨의 작품들은 파바트 색감을 차용한 원색적이고 원시적으로 표현된 강렬한 그림들이었다.

그는 "미술 업계에서 내 그림을 보고 '신표현주의적 작품'이라는 평을 주로 내리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신체를 통해서 내면을 찾는 과정을 주관적 경험을 통한 색채화로서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작품들에서 피카소의 명언인 "그림은 일기를 쓰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이다"와 음악 앨범명 등이 삽입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작가는 "페미니즘 성향을 창작활동으로 표현하고 싶었다"며 "이를 위해 여성 신체의 곡선을 통해 그림의 미를 찾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이어져 온 관습을 남성의 신체를 이용한 작품들만 그림으로서 낡은 사회적 관점을 전환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날 전시된 작품 'Shape'는 한 남성이 각각 정면, 옆모습, 고개 숙인 모습 등이 모두 들어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내면을 분리화한 것을 표현했다.

그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경제 불황이 미술 업계의 편중화된 작품 선호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아쉬움도 드러냈다. "컬렉터들은 인테리어용, 선물용 등 언제나 감상하기 편한 그림을 원하는데 작가의 관점으로는 주관적 내면이 드러난 작품이 더 많이 전시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한태정 작가, "그림으로 편안한 꿈 돌아보길"

한태정 작가는 목포에서 태어나 1994년까지 미술작가로 활동했지만, 결혼한 뒤 오랜 기간 붓을 놓고 있었다. 해외 자원 봉사, 미술 파트타임 팀장 등을 맡았던 그는 자식들이 모두 대학에 진학하자 인생에서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붓을 잡았다. "붓을 다시 집어 든다.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줄어들며 자연스럽게 그림 작업에 몰두했고 지난 2022년 '더 드림' 개인전을 시작으로 꿈에 대해 다시 되짚게 된다.

그의 작품에서는 봄의 화사함과 청동우리가 날아가는 모습을 통해 비참하고 싶은 포부가 들어가 있다. 그의 작품에는 오리가 많이 활용된다. 농가에서 새해 풍년을



켈리너리 작 '다이내믹'.

바라는 뜻으로 달아매는 장대인 '솟대'가 오리 모양인데 조류 중 인간과 가장 친밀한 오리를 의인화해 인간의 꿈과 희망을 빛내고 싶었다는 게 한 작가의 설명이다.

그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내 자신이 될 수 있었다. 관람객들이 작품을 보면서 편안해지고 꿈을 꾸면서 행복을 느끼는 삶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를 갖길 바란다"며 "나, 가족, 친구들과 함께했던 추억을 회상하고 우정·희망·행복을 그리며 어릴 때 꿈꿨던 미래와 희망을 작품에서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숙 작가, "우연히 다가온 찰레꽃 향기, 감동으로 전하고 파"

"찰레꽃이 예쁘게 향기를 품으며 지나가는 사람한테 위로가 되고 감동을 준다

는 걸 느꼈다. 순간 감정이 벅차올라 울음을 터트렸다."

중학생 때 미술부로 선발돼 그림을 시작한 이현숙 작가는 이후 결혼 생활과 교사로 활동하며 20여년 이상 그림과 멀어지게 된다. 지난 2018년 퇴직 후 다시 작가로 활동을 시작한 그가 그림으로 추구하는 주제는 '꽃을 통한 행복한 삶'이다. 25년간 지병을 앓고 있어 건강 회복을 위해 산책길에 나선 어느 날 우연히 찰레꽃의 강한 향기를 맡았다. 이날을 계기로 찰레꽃의 향기로 느꼈던 감동을 관람객들에게 그림을 통해 재현하고자 했던 그는 각종 꽃을 촬영하고 생명력 있는 꽃의 사진들을, 화면을 통해 재구성한 뒤 색 배합해 그리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현대사회는 물질문명이 발달하며 풍족하고 편리해졌지만, 우리의 삶은 규격화되고 개인주의적 사회로 변했다"며 "힘든 삶의 무게 속 고통받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이 가슴 한편 품고 있는 꿈과 사랑, 희망을, 꽃을 통해 되찾는 상징적 매체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전정미 작가, "누구나 갖고 있는 작은 희망을 그림으로 일깨워주고 싶어"

신안에서 태어나 청년작가로 활동해 온 전정미 작가는 결혼과 육아를 계기로 미술활동을 10여년 중단한 뒤 4년 전부터 전업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밝은 그림과 풍경화 위주로 그리던 그의 작품세계가 완전히 바뀌게 된 데는 사연이 있다.

"지인이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려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 이를 계기로 사람, 관계, 무게에 대해 큰 고민을 하게 됐고 지금도 홀로 괴로움을 견디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예술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는 고찰이 작품 속에 투영된다"고 밝혔다.

전 작가의 작품에서는 노동의 무게, 남성의 신체를 통한 극도로 차갑고 어두운 상태 등이 표현된다. 하지만 작은 희망도 함께 들어가 있는데 누구나 가지고 있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 희망의 끈을 스스로 꺼버리는 상황들을, 뉴스를 통해 보면서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사회에 대해 버티고 견뎌주라는 메시지가 드러난다. 그는 "남의 비위를 잘 맞추려고 순종적인 게 착한 게 아니라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바꾸려고 애쓰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다"며 "활대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